



구내염 약

요약

구내염 약은 구강 내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이다.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관리하기 위한 약물들이 주로 사용된다. 원인에 따라 스테로이드제, 진통제, 국소 마취제,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등의 성분이 국소적으로 가글이나 연고 등으로 사용되거나 복용하는 구강정, 경구약 등으로 사용된다.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주일 이상 사용해도 효과가 없으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외국어 표기

Drugs for stomatitis (영어)
口内炎藥 (한자)

동의어: 입병약, 입병 치료제, 입병 연고, 구내염 치료제, 구내염에 쓰는 약, 구내염에 바르는 약, 구내염약
종류, 구내염약 부작용

유의어·관련어: 아프타성 구내염, aphthous stomatitis, canker sore, 헤르페스성 구내염, herpes stomatitis, cold sore, 알부칠, 오라메디, 아프니벤큐

구내염

구내염은 매우 흔한 구강 내 염증성 질환으로 외상이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감염에 의해서 발생한다. 구강 내 어느 부위에나 발생할 수 있으며 통증과 궤양이 동반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구내염은 형태에 따라 궤양성, 수포성, 미란성 구내염으로 분류할 수 있다. 궤양성 구내염이란 입 안에 원형 또는 타원형의 깊이가 얇은 궤양이 생기는 경우로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이나 외상성 궤양 등이 이에 속하며 외상이

나 영양 결핍, 스트레스, 피로, 호르몬 변화 등이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포성 구내염은 점막 등에 수포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바이러스에 의한 구순포진, 대상포진, 수족구병 등이 있다. 미란성 구내염에는 다형홍반이나 구강 칸디다증 등이 속한다. 구내염의 치료는 염증과 통증을 줄이기 위해 국소적으로 스테로이드와 진통제나 마취제 성분의 연고, 구강정, 가글액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심한 경우 경구용으로 복용할 수도 있는데 원인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나 항진균제 등을 사용한다. 구강 내 청결을 위해서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며 그 밖에도 정확한 근거는 부족하지만 비타민B군 등의 영양성분을 보충하는 요법이 권장되기도 한다.

약리작용

구내염 약은 구강 내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로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관리하기 위한 약물들이 주로 사용된다.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 국소적으로 진통제 성분의 가글액을 사용하거나 국소마취제 등이 사용된다. 치료기간을 단축시키고 염증의 부위를 줄이기 위해 국소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구내염의 원인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성분 등의 경구용 약물이 사용될 수 있다. 그 밖에 폴리크렌줄렌 성분의 약물과 구강 청결을 위한 가글액, 영양소 보충을 위한 비타민 B군 섭취 등이 도움이 된다.

종류

다양한 종류의 약물들이 단독 또는 다른 약물과 복합되어 구내염 치료를 위해 사용된다. 각 약물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진통제

구내염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디클로페낙, 벤지다민 등의 성분을 가글액 형태로 사용한다.

스테로이드제

트리암시놀론, 텍사메타손 등의 성분이 사용되며 완전한 치료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병 초기에 국소적으로 사용하여 염증을 줄인다. 이로 인해 통증이 감소되고 구내염의 진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재발감소에도 도움을 준다. 연고나 구강정*의 형태로 사용된다.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이나 벤조카인 등의 성분이 단독으로 혹은 살균작용이 있는 성분과 복합제의 형태로 사용되어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구내염의 원인에 따라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에는 아시클로버 등의 항바이러스제를 연고제나 복용하는 경구 형태로 사용하고, 곰팡이균의 일종인 칸디다균의 감염인 경우에는 니스타틴 등의 항진균제를 경구로 복용한다.

기타

폴리크레졸렌은 유기산의 일종으로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고 지혈 작용을 통해 국소적으로 치료를 촉진하므로 구내염에 사용한다. 구강 내 위생을 위해서는 세틸피리디늄과 클로르헥시딘 성분이 사용된다. 클로르헥시딘은 농도에 따라 정균 및 살균작용을 나타낸다. 세틸피리디늄 성분은 단독 혹은 복합제의 형태로 연고, 트로키제[†] 등의 제형으로 사용한다. 그 밖에 비타민 B군 등의 영양소 섭취를 통해 상처의 회복과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Table 1. 구내염 약의 종류

구분	약물		제품 예
진통제	디클로페낙		아프니벤큐 [®]
	벤지다민		탄툼 [®]
스테로이드제	트리암시놀론		아프타치 [®] , 아비나 [®] , 오라메디 [®]
	덱사메타손		페리덱스 [®]
국소마취제	벤조카인	+멘톨	솔레쉬 [®]
	리도카인	+벤잘코늄	마우스엔 [®]
		+세트리모늄+티로트리신	레모신에프 [®]
		+카밀레화틴크	카미스타드엔 [®]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아시클로버		조비락스 [®]
	니스타틴		타로니스타틴 [®]
기타	폴리크레졸렌		알보칠 [®]
	클로르헥시딘		헥사메딘 [®]
	세트리모늄		쿨스트립 [®]
	비타민B군함유 비타민제		임팩타민 [®]

* 구강정: 보통의 정제처럼 그대로 삼켜 버리지 않고 입 안에 넣은 채 천천히 녹여서 약의 작용이 서서히 나타나도록 만들어진 정제. 혀 밑에 넣어 녹이는 설하정, 사탕처럼 입안에서 녹여먹는 트로키제, 어금니와 볼 사이에 두고 녹여 흡수시키는 버칼정 등이 있다.

† 항진균제: 곰팡이균, 즉 진균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

‡ 트로키제(troche): 입에서 녹여서 구강이나 인후 점막에 흡수되어 작용하도록 만든 약. 씹거나 그대로 삼키지 않아야 한다.

효능·효과

구내염으로 인한 통증과 염증의 완화 및 구강의 청결에 사용된다. 그 밖에도 비타민제는 구내염의 치유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한다.

용법

구내염에 국소적으로 사용되는 약은 가글액, 구강정, 연고, 트로키제 등 다양한 제형으로 나뉜다. 각 제형별 혹은 경구용 약물은 1일 투여 횟수, 1회 투여량 등이 약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 따라 사용한다.

부작용

구내염 약의 부작용은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구강 점막에 자극이 나타날 수 있으며 스테로이드제는 칸디다증이 발생할 수 있다. 구강청결제 성분은 구강 내 치아 등이 착색의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도록 한다.

그 외에 부작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주의사항

- 국소적으로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염진통제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7일 이상 사용해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 국소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 구강 내에 감염증이 있을 때는 투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 투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적절한 항균제(경구용)로 치료를 하거나 또는 이들과 함께 투여한다.
- 트로키제의 경우 침으로 천천히 녹여 복용하며 유효성분이 장시간 입안에 머물도록 씹거나 삼키지 말고 가능한한 오래 입안에 물고 있어야 한다.
- 폴리크레줄렌은 과량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구강점막이나 잇몸에 바르고 난 후에는 철저하게 입안을 행군다.
- 입안에 바르는 연고제의 경우 사용 후 바로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한다.

그 외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